

"천재가 있어"... '미스트롯3' 김연우·박칼린 극찬받은 참가자 누구?

등록 2023.12.13 01:16:00



[서울=뉴시스] 21일 오후 10시 첫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트롯3'는 이름만 들어도 신뢰를 안기는 '보컬의 신' 김연우와 '국내 뮤지컬 음악감독 1호' 박칼린이 새 마스터로 합류해 기대를 더한다. (사진=TV조선 제공) 2023.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결 인턴 기자 = 가수 김연우와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이 트로트 오디션 심사의 새 지평을 연다.

21일 오후 10시 첫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트롯3'에는 김연우와 박칼린이 새 마스터로 합류한다. 트로트 오디션에서 보기 쉽지 않은 두 사람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궁금증을 더한다.

두 사람은 최근 진행된 첫 녹화부터 막강한 존재감으로 72인 참가자들을 잔뜩 긴장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트로트와 오디션 심사에 진심인 두 사람은 매의 눈으로 무대를 지켜보며 꼼꼼하게 심사를 했다는 후문이다.

정확한 음정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유명한 김연우는 장기인 보컬 영역 심사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과시했다. 특히 '미스트롯3'는 가창력은 기본이고 넘치는 끼와 신선한 매력으로 무장한 72인 참가자가 출연한다. 이에 김연우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타 오디션이라면 결승 무대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은 실력자들이 연이어 나오자 "노래 부르기 위해 태어난 사람", "천재가 여기 있다" 등의 극찬을 쏟아냈다.

박칼린은 대중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트로트 가수의 가창력은 그 어떤 장르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평소 냉철한 심사평으로 '호랑이 마스터'로 불리는 박칼린 역시 뛰어난 실력자들의 무대에서는 자신이 예고한대로 즐기면서 무대를 지켜봤다. "폭 빠져서 하트 놓칠 뻔 했다", "완벽했다. 노래 들려줘서 감사하다" 등 박칼린도 사로잡은 참가자들이 이어지며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불꽃 튀는 전쟁의 서막을 예고했다.

제작진은 "김연우와 박칼린 마스터의 좋은 보컬리스트를 선별하는 시선은 따라올 자가 없다. 트로트에 조예까지 깊은 두 마스터가 '미스트롯3'에서 일으키는 시너지가 상당하다. 그동안 트로트 오디션에서 볼 수 없었던 신선하고 파격적인 심사와 조연을 기대해 달라"고 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kkyul@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